



◀ 좁은 보행로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보행이 불편했던 전주시내 구도심 길이 걷기 좋은 거리로 탈바꿈되고 있다. 사진은 현재 조성된 전주 구도심 거리.



차 대신 사람... 전주 역사·문화 도보로 만끽

좁은 보행로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보행이 불편했던 전주 구도심 길이 걷기 좋은 사람중심의 거리로 탈바꿈되고 있다. 전주시는 재창조·복원을 앞둔 전라감영 주변 거리를 시민과 관광객이 전주의 천년 역사와 전통문화를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역사와 문화, 사람의 거리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상은 유지하되 전통공예 등 전통 문화 관광콘텐츠로 채울 계획이다.

시는 전라감영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 고물자골목 재생사업 등이 모두 완료되면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의 발길이 남부시장과 풍남문을 거쳐 복원예정인 전라감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전라감영 테마거리와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등을 거쳐 원도심 전역으로 전주관광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과거 차량 중심이었던 전주 원도심 골목길을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거리로 바꿔 나가고 있다"라며 "전주의 근현대

전라감영 조감도 ▶

거리로 변화했다. 시는 또 전라감영부터 완산교까지 500m구간을 잘 보존된 근현대 건축물과 전통식당, 고미술, 한방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동과 노송동, 풍남동 등 옛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한 1.43㎢(43만2575평)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마중물 사업으로, 시는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상인공동체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18년 말까지 총 15억원을 투입해 남부시장에서 명산약국, 라온호텔까지 길이 270m, 폭 3m의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는 고물자(구호물자)골목 재생사업도 전개한다. 시는 조선시대 은방골목이 형성됐던 옛길 그대로 남아있는 골목길의 형

건축물과 역사가 잘 간직된 원도심 거리와 골목길을 잘 가꾸어 전주관광효과가 모세혈관처럼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한옥마을 1000만 관광효과를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천 너머 서학동 일원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인도교인 '오목교'를 개설하기도 했다. /김민근기자



▶ 풍남문



풍남문~전라감영 구간 1단계 공사 완료 현재 풍패지관 구간 역사문화거리 조성 인도 폭 넓어져 걷기 좋은 곳으로 변화

중앙동 등 대상 마중물 사업 일환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도 전개 시, "전주관광효과 확산 기대"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해 풍남문~전라감영 구간의 1단계 공사에 이어 현재 전라감영에서 풍패지관(객사) 구간을 역사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전라감영 테마거리 조성사업'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물 제308호인 풍남문과 복원·재창조되는 전라감영, 보물 제583호인 풍패지관(객사)를 잇는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과거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보행자가 차를 피해 다녔던 기존 도로는 일방통행의 한 개 차로로 줄어드는 대신, 인도 폭이 넓어져 걷기 좋은

국립아시아 문화사
국립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길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